

구례군, 관광명소 수락폭포 출입통제



구례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관광명소인 수락폭포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구례군은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수락폭포 상류부에 낙석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락폭포 상류부 주변을 위험구간으로 설

정하고 6월 8일부터 통제한다. 이번 여름에 수락폭포 물맛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낙석 제거와 방지망 설치는 모두 수작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류부 낙석 자주 발생해 위험구간 설정 안전시설 설치 후 개방...2개월 이상 소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폭포 주변의 계곡과 물놀이 시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락폭포 물맛이는 위험하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락폭포는 15m 높이의 기암괴석 사이로 폭포수가 은가투처럼 쏟아지고 주변에는 돌단풍·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신경통·관절염·근육통·산후통 등에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여름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북적인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수락폭포의 공기 1m³당 산소음이온이 평균 1만4060개, 최대 17만8100개가 발생한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도시의 34배 수준이다. 산소음이온은 인체의 면역력 증진, 알레르기 비염 천식증상 완화, 혈액 정화, 두뇌기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동편제 관소리의 대가인 송만갑(1865~1939)이 득음을 위해 이곳에서 수련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멜론 재배 40여년’ 곡성군 달콤한 향기로 소비자 유혹

곡성군이 연초록 멜론의 달콤한 향기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최근 곡성군에서 가장 중한 것은 멜론이다. 고품질 멜론 생산은 물론 다양한 가공품과 체험 등을 결합시키며 멜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로켓프레시를 신규 런칭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국내 신선식품 새벽배송의 선두주자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월 1회 이상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익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최대 9만 건을 배송한다. 전국의 여러 멜론 브랜드 중 쿠팡 로켓프레시에 등록된 것은 곡성멜론이 처음이다. 이로써 전국 어디서나 곡성멜론을 주문하면 하루만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탐앤탐스 신 메뉴 출시 및 관련 가공식품 개발이다. 탐앤탐스는 국내에 약 430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다. 탐앤탐스에서는 지난 6월 1일 ‘곡성멜론 스무디’와 ‘곡성멜론 빙수’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이외에도 곡성군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강례오 셰프와 협업해 곡성멜론 아이스크림, 장아찌(3종), 식초 등 곡성멜론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멜론마을 조성이다. 곡성군은 지역 내 최대 멜론 생산지인 곡성읍 대평리 2구 금예마을을 멜론마을로 지정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새로운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 농가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곡성멜론복합체험

센터는 곡성멜론을 활용한 상품을 테스트 및 판매하고, 다양한 멜론 체험 관광을 운영하는 플랫폼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전국적인 멜론 주산지라 했지만 곡성군이 멜론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다. 비닐 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로서의 비중을 점점 넓혀갔다. 특히 섬진강과 보성강변의 기름진 땅과 깨끗한 환경이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과 수십년의 경력으로 쌓은 농가들의 전문성으로 인해 곡성멜론은 전국 각지의 멜론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곡성군의 대표적인 멜론 생산단지인 곡성읍 대평리 일대는 멜론 전문생산단지로 조성되어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곡성군의 멜론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 농림부 지정 수출원예단지(멜론)로 선정됐고, 2008년 곡성멜론클러스터사업단이 출범했다. 2009년에는 곡성멜론 통합 APC를 준공하고 비파괴 선별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멜론 브랜드화를 위한 BI 및 CI 개발도 이뤄졌다. 그리고 2010년에는 멜론 생산농가 GAP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랑 받고 있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336농가 136.6ha에서 연간 4,918톤의 멜론이 생산된다. 국내 멜론 총 생산량의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 소득액은 약 130억 원이다. 인구 3만이 되지 않는 작은 농촌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비중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 고서 덕촌마을,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주민 30여 명 대상 매주 수·목요일 시행

담양 고서면 덕촌마을(이장 김복중, 부녀회장 홍은자)은 마을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 목요일 마을회관에서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후원해 1,900만원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군공예명인협동조합(이사장 김미선)에서 시행한다.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한지, 섬유, 금속공예, 푸드아트 테라피 등 4개 과목을 하루 3시간씩 총 32회 진행하며, 주민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위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강성령 고서면장은 교육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



하며 주민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

해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경희 기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15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화순군은 오는 15일부터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해 7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기준(2020년 5월 6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에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3만1319세대 6만2498명, 총 지급액은 125억으로 예상된다. 세대주가 생계급여·장애인 연

금·기초연금 수령자인 취약계층 세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24일까지 현금(계좌 송금)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자에 대해 18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 걸쳐 지급 대상자

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일과 지급 장소(읍·면 농협 지점)를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수령 기한은 6월 30일이다. 읍·면 방문 신청은 29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방문 신청 즉시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인 세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신청·지급’ 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읍·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평범한 속 한속 일상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